



300대 기업 2022 ESG 사업 키워드
보도일시 : 2월 9일(수) 조간 (인터넷 : 2월 8일(화) 11:00 이후)
내용문의 : ESG팀 송재형 팀 장(02-3771-0328, 010-8652-9231) ESG팀 조병철 연구원(02-3771-0448)

매출 300대 기업, 올해 ESG 사업 더 키운다

- [ESG 사업규모] 확대 81% vs 축소 無, 전담인력 경력 짧아(5년 이하 93%) 인력확보 주력
- 올해도 환경(E) 부문 가장 중요, 탄소감축(37%), 신재생에너지(23%) 등 최우선 과제
- * 사회(S) 부문 최우선 과제 : 안전·보건,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인권경영 순
- **주주대표소송, 노동이사제 등과 같이 기업경영에 부담 줄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매출액 300대 기업 81%가 ESG 사업예산과 인력을 더 늘릴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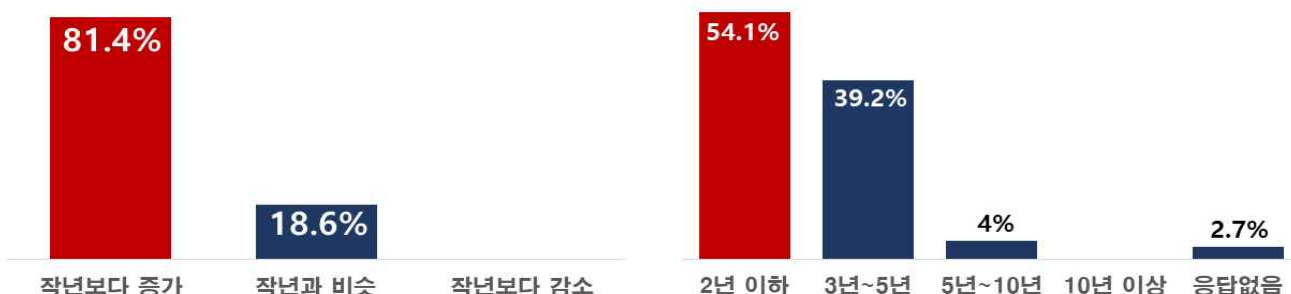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86개 사 응답)한 결과다.

응답기업의 81.4%가 작년 대비 올해 ESG 사업규모(예산 및 인력기준)를 늘릴 것이라고 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18.6%는 ESG 사업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 답변했고, ESG 사업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없었다. ESG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8.4%가 설치(64%)했거나 설치할 예정(24.4%)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기업의 82.6%는 ESG 전담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71.0%) 설치예정(11.6%)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ESG 전담부서 구성원의 업무 경력 기간이 5년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93.3%^{주)}에 달해 국내 기업들이 ESG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ESG 경영 애로요인으로는 ‘ESG에 대한 전문성 부족’(37.6%)과 ‘전문인력 미비’(10.8%)가 48.4%였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그룹에서는 ESG 전략·공시, 환경 분야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다.

* 주) ESG 전담부서 구성원 업무 경력 기간 : 2년 이하 54.1%, 3년에서 5년 39.2%

2022 ESG 사업규모 증감계획(전년比)

ESG 전담부서 구성원 ESG 업무 경력



올해도 환경(E)이 가장 중요...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최우선과제

주요 기업들은 ESG 중 환경(67.4%)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18.6%), 지배구조(14.0%)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환경분야 최우선 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37.1%), 신재생에너지 활용(23.0%), 친환경 기술개발(13.5%) 등을 꼽았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4,400억 원 규모 친환경 설비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화건설은 2030년까지 2GW 규모 이상의 풍력사업 개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S) 분야 키워드는 안전·보건, 공급망 ESG 리스크 쏠림

사회 분야 우선과제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35.6%),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22.0%), 인권경영(12.7%), 노사관계(8.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안전 분야 시스템 확충을 위해 노력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안전·환경 부문에 내년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자하여 집중관리에 나선다. LG 화학은 전세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분야 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는 매그놀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협력사에 ESG 컨설팅 등 ESG 리스크 관리 지원을 실행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82.6%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40.7%), 시행할 예정(41.9%)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다가 자칫 갑질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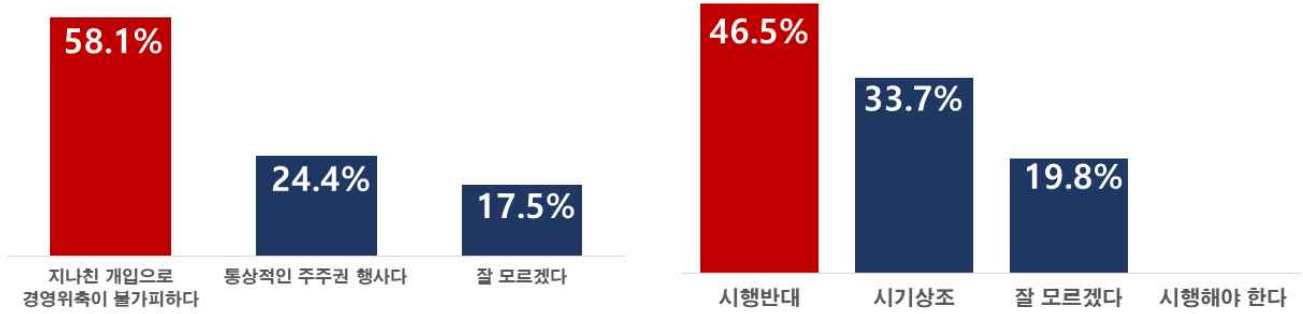
< 주요 기업의 환경·사회 분야 사업 및 투자 계획 >

기업명	주요 내용
현대제철	· 4,400억 원 규모의 코크스 건식소화설비 투자 계획 발표
한화건설	·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롯데케미칼	· 2021~23 안전/환경부문 5,000억 원 투자 / 사업장 단위 안전환경부문 신설
LG화학	· 매그놀리아 프로젝트로 전세계 사업장 환경·안전 관리체계 확립

전경련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한 ESG 담당자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경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란 응답이 58.1%로 ‘통상적인 주주권 행사’란 응답(24.4%)의 두 배가 넘었다. 노동이사제 확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도입반대’(46.5%) 또는 ‘시기상조’(33.7%)란 응답이 80.2%에 달했다.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이사제 확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어나는 ESG 정보 공시 대비하여 기업 공시역량 지원 강화 필요

ESG 관련 비재무정보 공시규제에 대해서는 72.1%가 ‘기업에 부담’이라고 응답했다.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기업은 ESG 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된다. 또 IFRS재단이 설립한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는 이번 달(‘22.2월) 글로벌 ESG 공시기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공시와 관련된 국내외적인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일률적인 공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 이유로는 ‘비재무정보 정량화가 어렵다’(42.9%), ‘공개의무항목 범위가 과도하다’(23.0%), ‘공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16.2%)’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국내 기업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39.3%), ‘ESG 관련 규제 완화’(26.6%),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17.9%)순으로 조사되었다.

※ [첨부] ESG 경영 2021 결산 및 2022 계획 설문조사

[첨부] ESG 경영 2021 결산 및 2022 계획 설문결과

Q1. 귀사는 ESG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가 갖춰져 있으십니까?

- ① 예(64.0%) ② 아니오(11.6%) ③ 설치 예정(24.4%)

Q2. ESG 전담부서를 설치하셨습니까?

- ① 예(71.0%) ② 아니오(17.4%) ③ 설치 예정(11.6%)

Q2-1. 위 질문에서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우 구성원의 ESG 업무 경력은 평균 몇 년입니까?

- ① 2년 이하(54.1%) ② 3~5년(39.2%) ③ 5~10년(4.0%) ④ 10년 이상(0.0%) ⑤ 응답없음(2.7%)

Q3. 지난해 귀사가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ESG에 대한 전문성 부족(37.6%) ② 전문인력(채용 등) 미비(10.8%)
③ 과도한 비용 소요(16.1%) ④ 모호한 개념에 대한 혼란(21.5%)
⑤ 낮은 사업 관련성(5.4%) ⑥ 기타(____)(8.6%)

Q4. (2022년 계획) 2021년 대비 2022년 ESG 사업규모(예산, 인력 등)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작년보다 증가(81.4%) ② 작년과 동일(18.6%) ③ 작년보다 감소(0.0%)

Q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정보 공개,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30년부터는 전체 기업이 의무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부담이 없다(3.5%) ② 부담이 없다(22.1%) ③ 부담이다(62.8%)
④ 매우 큰 부담이다(9.3%) ⑤ 잘 모르겠다(2.3%)

Q5-1. 비재무정보 공시 준비에 있어 주요 애로사항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복수 응답)

- ① 공시 관련 비용 부담(11.8%) ② 과도한 공개의무항목 범위(23.0%)
③ 비재무정보 정량화 어려움(42.9%) ④ 공시 준비기간 부족(4.9%)
⑤ 공시 전문인력 부족(16.2%) ⑥ 기타(____)(1.2%)

Q6.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 귀사 입장에서는 올해 어떤 분야가 중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 ① E 환경(67.4%) ② S 사회(18.6%) ③ G 지배구조(14.0%)

Q7. E(환경) 부문에서 2022년 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 탄소배출량 감축(37.1%) ② 순환경제 활성화(12.9%) ③ 신재생 에너지 활용(23.0%)
④ 친환경 기술개발(13.5%) ⑤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관리(11.8%) ⑥ 기타(____)(1.7%)

Q8. S(사회) 부문에서 2022년 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 ①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35.6%) ② 노사관계(8.3%) ③ 고용(2.4%) ④ 젠더 이슈(1.0%)
⑤ 세대(임직원) 간 갈등(4.4%) ⑥ 소비자보호(2.9%) ⑦ 제품·서비스 품질관리(6.8%)
⑧ 공급망 ESG 리스크(22%) ⑨ 지역사회관계(3.9%) ⑩ 인권경영(12.7%)
⑪ 기타(____)(0.0%)

Q8-1. 최근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통과돼 기업 전반에 확대될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며 당장 시행해야 한다(0.0%) ② 아직은 시기상조다(33.7%)
- ③ 시행해선 안 된다(46.5%) ④ 잘 모르겠다(19.8%)

Q8-2. 최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공급망 ESG 협력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귀사는 협력사에 ESG 컨설팅 등 ESG 리스크 관리 지원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 ① 예(40.7%) ② 아니오(17.4%) ③ 할 예정이다(41.9%)

Q8-3. 최근 국민연금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주주대표소송 등을 추진하는가 하면, 기업에 공문을 보내 최근 10년 동안 경영진이 주주에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통상의 주주권 행사로서 개의치 않는다(24.4%)
- ②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경영에 위축이 불가피하다(58.1%) ③ 잘 모르겠다(17.5%)

Q9. (ESG 활성화 제도과제)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39.3%) ② ESG 관련 규제 완화(26.6%)
- ③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 확대(17.9%) ④ ESG 전문 인력 육성 촉진(13.3%)
- ⑤ 기타(____)(2.9%)